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볼리비아









Republic of Bolivia

2019년 12월 20일 | 조사역(G3) 조현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099천 km ² 	인구 11.55백만 명 (2019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반미주의 
GDP 424.01억 달러 (2019 ^e) 	1인당GDP 3,670.96달러 (2019 ^e) 	통화단위 Boliviano(Bs) 	환율(U\$기준) 6.91 (2019 ^e) 

- 볼리비아는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남미 중부 내륙에 위치하여 동쪽으로 브라질, 북서쪽으로 페루·칠레, 남쪽으로 파라과이·아르헨티나와 접하고 있음.
- 풍부한 천연자원을 수출하여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빈부격차 해소 및 중산층 확대에 성과를 거두었으나, 산업의 고도화가 미흡하고 총수출의 35%를 차지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의 가스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 공공부문 지출 증가와 수출액 위축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가 지속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쌍둥이 적자의 보전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외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10월 대선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의 승리가 부정선거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모랄레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멕시코로 망명을 떠났고, 야당의 자니네 아녜스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직 승계를 선언하여 대선 재실시를 추진 중임. 한편 멕시코 도착 이후 모랄레스는 살아있는 한 정치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모랄레스 지지층의 시위가 지속되는 등 정치·사회 불안이 심해지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5. 4. 25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문화협정(1972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8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2001년, 2017년), 사증면제(외교관, 관용, 공무) (2011년), 무상원조협정(2014년)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66,339	65,707	48,969	자동차, 기호식품, 농약 및 의약품
수입	393,905	432,195	589,217	광물, 기호식품,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19.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5건, 203,541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제성장률	4.9	4.3	4.2	4.2	3.9
소비자물가상승률	4.1	3.6	2.8	2.3	1.7
재정수지/GDP	-6.9	-7.2	-7.8	-8.1	-7.8

자료: IMF, EIU

천연가스와 광물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하향세

- 2014년을 기점으로 원자재 국제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요 수출품목인 천연가스와 광물의 수출가격도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볼리비아의 경제성장률은 2015년부터 4%대로 하락하였음.
- IMF는 10월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볼리비아의 경제성장률이 2019년에는 3.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대선 이후 계속되는 시위와 파업으로 실제 경제성장률은 이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대두됨.
- 대선 이후 수도 라파스에서는 시위대에 의한 64대의 시영 버스 전소, Mallas 지역 부시장실 전소, Chasquipampa 지역 파출소 파손 등으로 총 9,100만 볼리비아노(약 1,300만 달러)에 달하는 공공자산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EIU는 정치적 불안정성 고조와 사회 동요를 근거로 볼리비아의 2019년 및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4.0% 및 3.9%에서 2.2% 및 2.0%로 대폭 하향 조정함.

정부지출 확대에 따라 GDP 대비 -7~-8%대의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정부 주도의 개발 마스터플랜인 'Patriotic Agenda 2025' 하에서 천연가스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국내 전력발전 역량 증대, 교통 인프라 개선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정한 5개년(2016~20년) 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라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등 정부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8월 말까지 약 25억 8,600만 달러가 공공 부문에 투입되었음. 이는 2019년도 정부예산의 47%에 해당하며, 동 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6%p 증가한 것임. Mariana Prado 기획개발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전체 예산의 78%를 공공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 상 수 지	-1,936	-1,907	-1,871	-1,990	-2,356
경상수지/GDP	-5.8	-5.6	-5.0	-4.9	-5.6
상 품 수 지	-388	-901	-516	-475	-711
상 품 수 출	8,684	7,030	8,105	8,879	8,409
상 품 수 입	9,072	7,931	8,621	9,354	9,120
외 환 보 유 액	11,357	8,251	8,199	6,909	4,615
총 외 채	9,906	10,999	12,990	14,077	15,679
총외채잔액/GDP	29.8	32.2	34.4	34.7	37.0
D.S.R.	11.7	23.1	27.2	21.2	21.7

자료: IMF, EIU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감소로 상품·경상수지 적자 규모 증가 추정

- 브라질에서 심해유전이 개발되어 자체 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아르헨티나의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2019년 상반기 볼리비아의 화석연료(천연가스 포함) 수출액과 총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9%, 8% 감소하였음.

외환보유액 감소세 지속 추정

- 국영전기공사(ENDE)와 도로사업청(ABC)의 전기·도로 프로젝트를 위주로 공공지출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상품수입 수요가 꾸준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8년 브라질에 대한 가스 수출이 협정상 할당량에 미달하여 1.3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요인으로 2019년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 대비 약 22.9억 달러 급감한 것으로 추정됨.

외채상환능력

대외부채 증가세 지속

- Mario Guillen 재정경제부 장관은 볼리비아의 재정상황이 지속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으나, 총외채가 156.8억 달러로 전년대비 1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D.S.R 또한 꾸준히 20%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대외지급능력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구조적취약성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천연가스 수출이 총수출의 약 33%, 재정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등 천연가스와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천연자원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인해 주요 수출상대국의 경기 둔화,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등의 외부충격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급격히 둔화될 우려가 크며, 산업고도화가 미흡하고 제조업 및 인프라 기반이 취약함.

성장잠재력

풍부한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으나 사업화 진전 미흡

- 볼리비아의 리튬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25%인 9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11월 2일 포토시 지역 시민위원회의 시위 결과로 볼리비아리튬공사(YLB)와 독일 ACI Systems사 간 합작회사 설립이 무산되는 등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전기자동차 수요의 전 세계적인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리비아가 리튬 개발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비판함.

정책성과

연 4% 내외의 꾸준한 경제성장 지속

- 지난 6년 간 중남미 국가 전체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0.8%였던 데 비해, 볼리비아는 풍부한 천연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4%대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음.

국영기업을 통한 천연자원 관리로 재정을 확충, 이를 바탕으로 한 복지 증진으로 빈곤 감소

- 광산, 전기, 통신, 철도 등 분야의 기업들을 국영화하여 확보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한 복지 증진을 통해 빈곤 감소에서 성과를 거둠.
- 볼리비아의 절대빈곤 계층 비율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05년 59.6%에서 2018년 34.6%로 감소하였고,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05년 0.59에서 2017년 0.44로 감소하였음. 아울러 2005년 3.3백만 명이던 중산층은 2017년 6.5백만 명으로 확대되었음.

정치동향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사퇴 및 망명 이후 임시정부 체제가 들어서며 정국 불안정

-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3선 연임을 금지하는 헌법의 개정을 위해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부결되었음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동 제한규정이 위헌이라는 해석을 받아내며 10월 대선에 출마하였음.
- 개표 결과 47.08%의 득표율로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였으나, 중간집계 결과 공개가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된 뒤 공개된 결과에서 2위 후보와의 격차가 7.1%p에서 10.1%p로 확대되자 야당의 불복 선언과 미주기구(OAS)의 개표과정 감사 및 결선투표 실시 권고가 이어졌음. 이에 모랄레스는 OAS의 개표과정 감사를 받아들였고, 감사 결과 부정선거임이 드러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모랄레스는 결국 11월 10일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멕시코로 망명하였음.
- 모랄레스의 사퇴를 전후하여 대통령직 승계 1~3순위인 부통령과 상·하원의장이 모두 사퇴함에 따라 권력 공백 사태가 발생하여 야당 사회민주주의운동 소속의 자니네 아녜스 상원 부의장이 상원의장직과 임시 대통령직 승계를 선언하였음. 그러나 이는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의회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여당 지지층의 시위를 초래하는 등 정정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11월 23일 의회에서 "총선거 실시를 위한 임시 예외 체제" 법안이 승인되며 2020년 상반기 중 선거가 재실시될 전망이다. 동 선거에는 임기를 두 차례 지낸 후보가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모랄레스의 재출마를 금지하였음.
- 이후 12월 7일 사회주의운동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모랄레스를 선거본부장으로 지명하여 당내 후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였음. 한편 모랄레스는 멕시코에서 쿠바를 거쳐 아르헨티나로 이동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 복귀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전망함.

사회동향

대선 이후 시위 지속 등 사회분열 악화

-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사퇴 이후 모랄레스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수도 라파스를 포함하여 일부 지역을 고립시켜 식품과 휘발유 부족 사태를 초래하였음. 한편 군·경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 아메리카 원주민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볼리비아에서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었던 모랄레스가 물러나면서 인종 간 분열이 우려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자니네 아녜스 임시 대통령이 성경을 지참하고 카톨릭 의식에 따라 취임식을 치르면서 정교 분리 원칙의 위배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는 등 종교에 따른 분열 또한 예상됨.
- 아녜스 임시 대통령은 11명의 관리 내각을 원주민 출신 없이 구성하였다가 격렬한 항의에 부딪힌 후 내각을 16명으로 확대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직에 원주민을 임명함.

국제관계

모랄레스의 퇴진에 대한 주변국들의 여론 대립

- 모랄레스의 사퇴 및 자니네 아녜스의 임시정부에 대해 미국과 브라질 등 우파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지지를 표명한 반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좌파 국가들은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비난함.
- 한편, 볼리비아 임시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우파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좌파 마두로 정권의 외교관들을 추방하였으며, 혼란 선동을 이유로 자국 내 725명의 쿠바인들을 추방하였음. 이후 11년 간 공석이던 주미 대사를 지명하고 이스라엘과 10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등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뒤집으며 주변국 좌파 정권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칠레와 해안영토 귀속 관련 분쟁 지속

- 볼리비아는 1879~83년 페루와 동맹하여 칠레를 상대로 벌인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며 유일한 해양 통로인 안토파가스타 지역을 잃고 내륙국이 되었음. 2014년 볼리비아는 안토파가스타 지역의 반환을 요구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토분쟁 사안을 회부하였으나, 4년 간의 심리 끝에 2018년 10월 칠레의 안토파가스타 지역 지배를 규정한 1904년의 평화조약에 대해 칠레의 재협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
- 다만, ICJ는 동 판결이 양국 간 해결책 모색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여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외채상환태도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19년 6월 말 기준 볼리비아에 대한 OECD ECA 앞 여신은 단기 39.6백만 달러, 중장기 38.5백만 달러임. 이중 연체금액은 2.9백만 달러로 전체 여신의 3.7%에 해당하여,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19.10)	5등급(2018.10)
Moody's	Ba3 (2012.06)	B1 (2010.12)
Fitch	B+ (2019.11)	BB- (2016.07)

Fitch, 볼리비아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 Fitch는 11월 원자재 수출가격 하향세 지속으로 인한 대외충격 완화 수단의 약화, 최근의 정치·사회 불안정으로 인한 거시경제 리스크를 반영하여 볼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한 등급 하향 조정하였으며,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공시함.

- 볼리비아는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국가임. 다만 포토시 지역의 리튬 개발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이 시민위원회의 시위 결과 무산되는 등 본격적인 개발 진전이 미흡하며, 최근 주요 교역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이 감소하여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 대선 이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로 사퇴하고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인종 및 종파 간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무역적자 규모 확대로 외환보유고가 급감한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부채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D.S.R이 20%를 상회하는 등 향후 외채상환능력에 주의가 요구됨.